



오픈도어 북한 기도회

2020년 9-10월

기도제목 1. 북한 주민들을 수해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8월 장마에 더해 9월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식량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황해남북도의 피해가 심각하여 추수철을 맞아 식량생산에도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제약, 연이어 닥친 홍수와 태풍 피해로 인한 남부지방의 식량과 가축이 손실 등을 이유로 북한을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태풍피해 관련 뉴스 보도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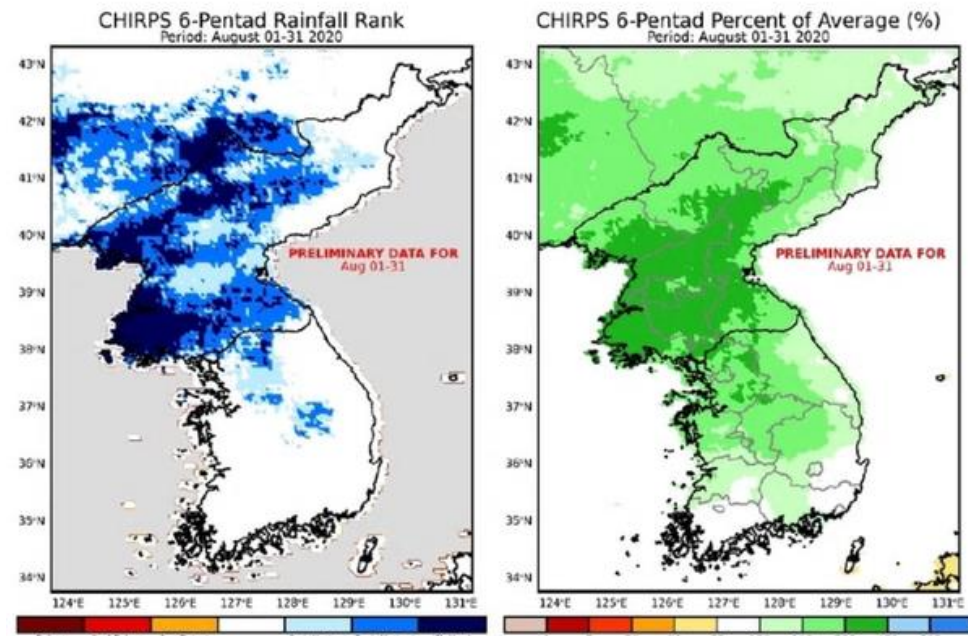
기도제목 1. 북한 주민들을 수해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는 등 빠른 복구에 힘쓰는 모습이지만 내실 없는 주먹구구식 복구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줄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해 복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확 감소와 식량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적인 도움을 넘어 영생의 복음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활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강우 도표. 북한 곡창지대는 40년 만에 최대의 강우량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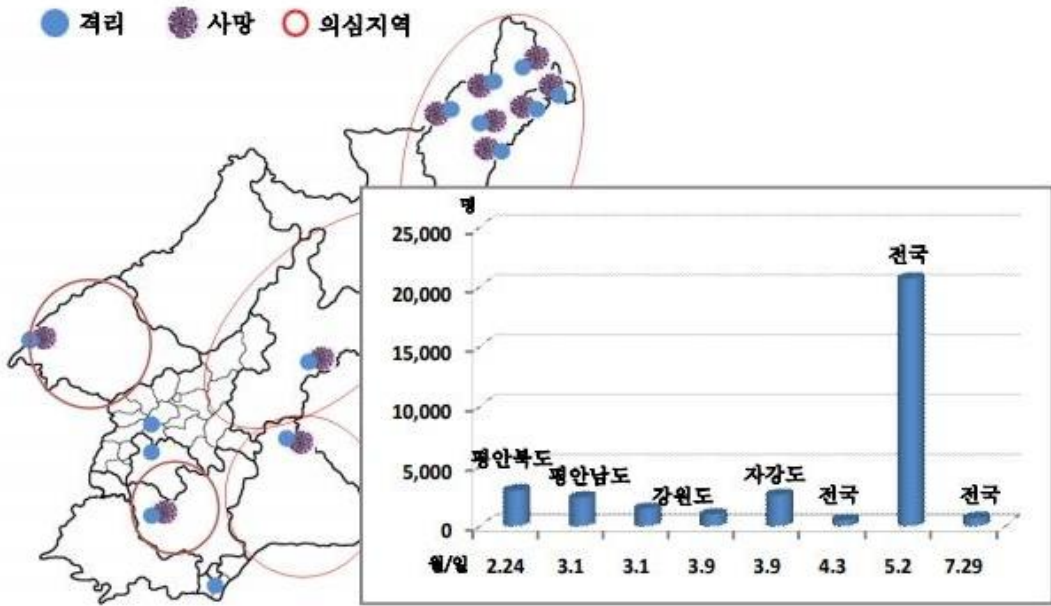
기도제목 2.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KDI 북한경제리뷰에 게재된 논문에서 북한의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내부자료를 입수, 인용하여 사리원과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회령,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일대에서 지난 5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림 2] 1월 15일~7월 29일 자가격리자 추이



<북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사망자 지역 분포 (KDI 논문 발췌)>



기도제목 2.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듯 북한 내 코로나 전파가 의심되고 있지만 의약품과 방역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외부 지원을 포함하여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행보에 나서도록 기도합니다.

의료적 지원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최근에도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순교의 소식이 현장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최근 발행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는 2018년도에 기독교 전파 혐의로 2명의 교인이 총살된 사건과 성경책을 배포하다가 적발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성도에 대한 증언이 새로이 포함되어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그 외에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선교사역자 등을 억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 선교와 관련되어 무고하게 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기도제목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된 잔혹한 핍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에 억류 또는 수감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조선족 사역자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들의 석방과 수용소 철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영육 간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기도제목 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특히 탈북민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취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남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정에서 주도해야 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
- 북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거세진 핍박 등 많은 난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탈북민들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보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북민들이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함께하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5.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이동통제 등의 영향이 큼니다.

현장에서는 조금씩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통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가능한 사역들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3국 체류 북한 여성들과 탈북자들을 돕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역이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3국 체류 북한 여성들과 통제 강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기도제목 6.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과잉 대응 및 우리 정부의 적절한 조치 여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남북한과 주변국의 의사결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여지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7.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 교회들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새로운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될 줄 믿으며, 특별히 통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더 크게 자라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적 평화통일의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선교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